

# 인제 다릿골 점간 놀이

-제 13 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때 : 1995. 9. 14 ~ 9. 15

곳 : 속초시 종합운동장



인 제 군  
인 제 문 화 원





## 배 경

인제군은 산이 많고 특히 바위와 돌이 많은 지역으로 옛부터 선조님들은 그 자원을 이용하여 생활을 영위해 온 지혜의 고장이다.

따라서 우리 인제군의 옛 선조님들은 교민화식(敎民火食)과 교민경가(敎民耕稼)의 시절부터 슬기를 발휘, 산에서 채취한 쇧돌(철광석)을 불에 녹여 농사짓는 쟁기와 밥을 짓는 밥솥·가마솥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에서 무쇠가 생산되었다하여 지명을 무쇠점골이라 불렀고 북면 월학리 구미동 마을 뒷산에서도 쇧돌(철광석)을 채취하였으며 남면 소재지 신남리는 다릿골이라는 옛 지명으로 불려져오는데 이곳에 「무쇠점간」이 있었다 한다.

이 무쇠점골과 구미동 뒷산에서 채취한 쇧돌(철광석)을 녹여 농사짓는 쟁기의 보습과 밥솥, 가마솥을 만들었다고 하며 지금부터 60여년 전까지는 무쇠점간이 있었고 젊은시절 한때 이 무쇠점간에서 일하기도 했었다는 옛 노인들의 생생했던 경험과 고증을 바탕으로 발굴하여 60명으로 구성된 한마당놀이로 재현하게 되었다.

## 특 색

「인제 다릿골 점간」놀이는 우리 선조들이 영위해 왔던 생활속에서 지혜와 애환이 가득 담긴 민속사를 발굴 보존하고, 또 그 장면들을 민속놀이의 형태로 그려내기 위하여 당시에 직접 종사하였던 지역 원로들의 고증을 얻고 관내의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그 원형을 재연하였다.

## 고증을 해주신분들

인제군	남면	신남 2리	김	학	수(77세)
인제군	남면	신남 2리	최	경	선(78세)
인제군	남면	신남 2리	조	만	환(76세)
인제군	남면	신남 2리	최	광	필(67세)



# 출연과장

## 입장과 인사

기수를 선두로 하여 농악, 점간주인, 선소리꾼, 화주, 비수안, 집사, 풍구질꾼, 아낙네 등으로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입장하여 원을 그리고, 관중에게 인사를 한다.

## 제1과장 : 쇧돌(철광석)채취

기수, 농악, 선소리꾼, 점간주인, 화주, 비수안, 집사, 아낙네를 제외한 출연자 모두는 양옆의 돌각산으로 춤을 추며 줄을 지어 가서 널려있는 쇧돌(철광석)을 캐거나 모으고 큰것은 잘게 깨어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

## 제2과장 : 뚝 제사

먼저 집사가 점간의 뚝 앞에 자리를 깔고 상위에 제물을 차려 놓으면 점간주인이 술을 한잔 부어놓고 배례를 한다음 앉아 있는 사이에 비수안은 옆에 앉아 비문을 읽는다. 비문을 다 읽은 후 점간주인은 배례를 하고 잔을 들어 뚝과 풍구의 군데군데에 술을 조금씩 붓는다.

## 제3과장 : 풍구질과 쇧돌(철광석) 녹이기

풍구질꾼은 모두 풍구에 올라간다. 이어서 선소리꾼은 소리를 주고 후소리꾼은 역시 출연자와 함께 소리를 받으며 풍구질을 한다. 한참 풍구질을 하다가는 쉬게 되며 설 적에는 아낙네들이 새참으로 술과 안주를 가지고 들어와 풀어놓고 돌려가며 술을 부어준다. 출연자는 웃저고리를 벗고 땀을 닦으며 술과 음식을 받아 먹는다. 쉬는 시간이 끝나면 아낙네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풍구질꾼은 선소리에 맞추어 풍구질을 계속한다.

## 제4과장 : 보습과 무쇠솥 가마솥 만들기

풍구질꾼은 풍구질을 멈추고 내려와 화주와 함께 붉은 쇧물을 덩이(뜰, 모형)마다 가득부어 보습과 무쇠솥 가마를 만든다. 한참동안 있다가 쇧물이 식으면 만들어진 보습과 무쇠솥, 가마솥을 덩이(뜰, 모형)에서 꺼내어 진열해 놓는다.

## 제5과장 : 한마당 놀이와 퇴장

출연자 모두는 중앙의 기수를 중심으로 하여 농악에 맞추어 만들어진 보습과 무쇠솥, 가마솥, 또다른 소품을 들고 흥겹게 소리를 지르며 돌아간다.

한참 한마당 놀이를 하다가 기수를 선두로 농악대 등 모두가 줄을 이어 원을 그리고 돌아선 다음 정리가 다 되면 징소리에 맞추어 관중을 보고 서 있다.

다시 징소리가 나면 관중에게 넋죽 절을 하고 다시 징소리에 맞추어 일어나서 줄을 지어 춤을 추며 퇴장한다.



## 뚝 제사 제문

해동조선 강원인제 다릿골에 터를잡아  
무쇠점간 지어놓고 보습솥을 만들적에  
불계부적 택일하여 삼색오과 술을빚어  
좌우진설 향배해서 홍동백서 좌포우회  
외적내탕 진설하고 소지발원 드리오니  
동방에는 백토지신 남방에는 적토지신  
서방에는 백토지신 북방에는 흑토지신  
모든지신 오시도록 하강하여 드릴적에  
소-례로 드린정성 대-례로 받으시고  
입은덕도 많건마는 새로새덕 비옴나니  
소망성취 바라건대 풍기독에 간압쇠는  
맑은청풍 불어넣고 일월같이 맑은불을  
한곳으로 몰아올려 철광석을 불계달귀  
주홍같은 붉은씻물 덩이덩이 옮겨부어  
보습솥을 만들적에 잘만들게 비나이다



# 씻돌(철광석) 채취 소리

## 선 소리

## 후 령

에-헤라 철광석아	에-헤라 철광석아
어화세상 벗님네야	" "
이내소리 들어보소	" "
옛날옛날 아주옛날	" "
인제서화 무쇠점골	" "
인제북면 구미동에	" "
세상에서 제일가는	" "
철광석이 나왔는데	" "
송곳같은 곡괭이로	" "
한번캐면 한덩어리	" "
두번캐면 두덩어리	" "
닷근짜리 쇠망치로	" "
한번치면 한덩어리	" "
두번치면 두덩어리	" "
똑딱똑딱 망치소리	" "
철컱철컱 팽이소리	" "
우리일꾼 잘도캐네	" "
철광석을 캐는소리	" "
산을타고 메아리쳐	" "
인제남면 다릿골에	" "
점간에다 알려주네	" "
점간주인 소리듣고	" "
흥겨워서 춤을추며	" "
여보시오 일꾼네들	" "
부지런히 씻돌캐서	" "
점간에서 불에녹여	" "

## 선 소리

## 후 령

농사쟁기 잘만들어	에-헤라 철광석아
우리농군 농사질때	" "
겨리소에 쟁기걸어	" "
어랴어랴 소리하며	" "
앞밭뒀논 갈고갈아	" "
모를심고 콩을심어	" "
농사풍년 맞이하여	" "
인제농촌 부촌으로	" "
내손으로 만들으세	" "
에-헤라 철광석아	" "
우리일꾼 씻돌캐때	" "
구슬같은 땀방울에	" "
적삼바지 다젖었네	" "
가련하다 우리신세	" "
어찌하여 사시사철	" "
비가오나 눈이오나	" "
씻돌캐는 사람됐나	" "
어떤사람 팔자좋아	" "
고대광실 높은집에	" "
사귀에다 풍경달고	" "
부귀영화 누리는데	" "
우리일꾼 어찌하여	" "
한평생을 힘든일로	" "
살아야만 하겠는가	" "
오늘날은 그만캐고	" "
내일다시 캐오보세	" "



## 풍구질 소리

풀무풀떡  
 이풍구를  
 제일가는  
 어델가나  
 어델가나  
 동네방네  
 풍구질도  
 보습한장  
 무쇠받솥  
 불티나게  
 이내팔자  
 풍구부는  
 구슬같은  
 등걸잠방  
 풀무풀떡  
 여보시오  
 이내말을  
 나이오십  
 장가한번  
 젊은청춘  
 풍구질로  
 여보시오  
 누구든지  
 이내몸을  
 내평생의

풀무풀떡  
 잘불어서  
 무쇠점간  
 소문났네  
 제일일세  
 우리일꾼  
 잘도하네  
 쌀한말에  
 쌀두말에  
 팔려간다  
 어찌하여  
 일꾼됐나  
 땀방울에  
 다젖었네  
 풀무풀떡  
 일꾼네들  
 들어보소  
 한평생에  
 못가보고  
 점간에서  
 다늠었네  
 동네사람  
 딸있거든  
 사위삼소  
 소원이요

여보시오  
 새참올때  
 부지런히  
 천덕마님  
 팔푼치마  
 사뿐사뿐  
 여보시오  
 땀도땀고  
 새참먹고  
 다시불며  
 풀무풀떡  
 어떤사람  
 고대광실  
 흥타령만  
 이내팔자  
 풍구질로  
 여보시오  
 풍구질에  
 부지런히  
 받솥가마  
 장날마다  
 한푼두푼  
 색시얻어  
 궁궐같은  
 아들낳고  
 영화부귀

풍구질꾼  
 되었는데  
 불어보세  
 거동보소  
 휘어감고  
 걸어오네  
 일꾼네들  
 힘도드니  
 쉬었다가  
 일해보세  
 풀무풀떡  
 팔자좋아  
 높은집에  
 부르는데  
 한평생을  
 살아가네  
 일꾼네들  
 한탄말고  
 잘불어서  
 잘만들어  
 팔아다가  
 저축하여  
 장가가고  
 집을짓고  
 오복맞아  
 누려보세



# 출 연 자

- 출연인원 : 60명(남 56명, 여 4명)
- 조 사 : 이만철(인제문화원사무국장)
- 연출지도 : 박해순(인제향토민속보존회장)

성 명	년령	배 역	성 명	년령	배 역
박 해 순	71	선 소 리	전 현 길	27	풍 구 질 끈
장 태 수	39	후 소 리	양 승 용	31	"
김 상 혁	72	농 " 악	최 태 석	39	"
이 만 식	75	"	이 덕 엽	35	"
이 상 주	65	"	김 용 식	32	"
남 범 수	77	"	김 창 진	30	"
김 궁 작	61	"	이 용 하	33	"
김 승 기	31	"	김 중 현	29	풍 구 질
허 만 영	74	"	목 성 균	29	"
이 주 은	63	"	유 정 원	29	"
김 종 호	44	"	최 철 규	30	"
박 공 모	73	비 수 안	최 재 혁	29	"
김 유 근	65	집 간 주	서 향 기	30	"
최 용 순	62	점 낙 인	유 회 창	32	"
		아 " 네	박 상 덕	30	"
전 옥 련	75	"	김 재 영	31	"
박 춘 매	70	"	한 익 용	45	"
정 길 녀	68	"	이 천 영	44	"
홍 명 환	40	풍 구 질 끈	송 창 순	37	"
유 지 동	40	"	최 병 현	24	"
김 동 열	44	"	최 재 구	46	화 부
연 제 동	34	"	김 영 운	38	"
남 평 우	40	"	강 대 욱	45	"
전 덕 균	37	"	조 성 구	32	"
오 인 종	31	"	이 동 선	62	"
김 진 수	35	"	이 동 준	68	"
유 지 관	36	"	김 동 기	56	"
장 충 식	41	"	안 한	36	큰 기 수
곽 재 환	32	"	오 성 현	38	작 은 기
허 병 도	38	"		40	작 은 기 수